

초등학교 1학년 9단원 국어 정답 및 해설

※ 국어영역 ※

정답

01	④	02	⑤	03	①	04	⑤	05	④
06	③	07	②	08	④	09	④	10	③
11	③	12	①	13	④	14	②	15	①
16	②	17	③	18	④	19	②	20	③
21	②	22	⑤	23	③	24	⑤	25	④

해설

1.
④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. 미래에 있을 일(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)을 상상해서 말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.

[오답풀이]
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, 그 일이 언제/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, 일어난 일 중 어떤 일이 기억에 남는지 떠올려 말해야 한다.

2.
⑤ 그림일기에 읽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. 그림일기에는 날짜, 요일, 날씨, 그림, 글 등이 들어가야 한다.

3.
① 그림의 친구들은 체조와 훌라후프, 줄넘기 등을 하고 있다. 그러므로 그림에 알맞은 문장은 ‘민혁이는 친구들과 운동을 했습니다.’이다.

[오답 풀이]
나머지는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.

4.
⑤ 그림에서 민혁이는 훌라후프를 하고 있다. 그림 속 민혁이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‘훌라후프를 했더니 몸이 튼튼해지는 기분이었다.’이다.

[오답풀이]

①, ② 그림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다.
③ 다른 친구의 생각일 것이다.
④ 그림에서 달리기를 하는 친구는 찾아볼 수 없다.

5.
④ ‘무척 걱정이 된다’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,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상황을 찾아야 한다. 따라서 ‘친구가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한 상황’이 가장 알맞다.

6.
③ 우산, 구름 그림은 날씨를 나타내는 기호이다. 따라서 ㉠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‘날씨’이다.

7.
② 글쓴이는 ‘엄마의 생일잔치를 하는 모습’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.

8.
④ 엄마는 생일에 케이크와 선물을 받아 기쁜 마음, 행복한 마음, 즐거운 마음, 흐뭇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. 속상한 마음은 알맞지 않다.

9.
④ 그림일기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적게 된다. 글쓴이는 ‘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신이셨다.’라고 했으므로, 엄마의 생일은 그림일기를 쓴 날짜를 보고 알 수 있다. 따라서 엄마의 생일은 6월 30일 토요일이다.

10.
③ 그림일기에는 날짜, 요일, 날씨, 그림과 글 등이 들어가야 한다. 이 그림일기에는 날짜와 요일이 빠져 있다.

11.
③ 우산에 빗방울이 그려져 있으므로,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12.
① 글쓴이는 꿈속에서 오빠와 무지개를 미끄럼틀처럼 탄 것을 그림일기로 나타내었다.

[오답풀이]

④ 오빠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아니라 꿈 속에서 무지개를 미끄럼틀처럼 탄 것이다.

13.

④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은 ‘행복했다’이다.

14.

② 아빠와 동물원에 다녀왔다고 했으므로, (가)는 아빠이다.

15.

① 이 그림일기는 아빠와 동물원에 다녀온 일에 대해 쓴 것이다.

16.

② 그림일기의 글과 그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. 코끼리를 만났다는 것은 알 수 없다.

[오답풀이]

①, ③, ⑤ 기린과 꽃, 풍선은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④ 그림일기를 쓴 날짜를 보고 알 수 있다.

17.

③ 이 그림일기에는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빠져 있다. 동물원에 다녀온 일에 대해 ‘참 재미있었다. 또 가고 싶다.’라는 생각이 가장 알맞다.

[오답풀이]

①, ②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. 비가 오거나 사슴을 만난 일은 있었던 일이 아니므로 알맞지 않다. 또, ‘귀여운 사슴을 만났다’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다.

④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간 것이므로 알맞지 않다.

⑤ 놀이공원이 아니라 동물원에 다녀 왔다.

18.

④ 찰흙으로 토끼를 만든 것이므로 찰흙으로 동물 모양을 만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.

19.

② 찰흙으로 동물 모양을 만든 일에 대해 쓴 그림일기이므로, ‘미술시간’이 가장 알맞다.

20.

③ 또 만들고 싶다고 한 것은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다.

21.

② 글쓴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림일기로 나타내었다.

22.

⑤ 이 그림일기에는 요일과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빠져 있다.

23.

③ 그림일기의 그림에 눈이 내리고 있으므로, 알맞은 날씨는 ‘눈이 내리는 날씨’이다.

24.

⑤ 눈이 와서 눈싸움을 한 것을 그림일기로 나타낸 것이므로, 이 그림일기에 알맞은 계절은 ‘겨울’이다.

25.

④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긴장했다는 것은 그림일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